

고물가 지속... 자영업자들 수입 멸균우유 찾는다

미국산 우유 관세 0%·유럽산도 7월부터 무관세 영양소 차이 없어...“지역 낙농가 정부 지원 필요”

광주 서구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40대 A씨는 최근 제빵과 음료 제조에 사용하던 우유 대신 수입 멸균 우유로 대체하고 있다.

수입 멸균 우유가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길어 재고 부담이 적다는 점과 가격도 국내 우유보다 2000원 정도 저렴해 원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미국산 우유 관세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관세 인하를 계기로 수입 멸균우유가 빠르게 국내 시장으로 파고들고 있다.

특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가 압박에 큰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수입 멸균 우유 소비가 늘고 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국산 우유의 관세는 기존 2.4%에서 0%로 내려

갔다.

유럽산 우유 관세도 기존 4.8~2.5%에서 2.5~0%로 낮아진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는 이마저도 전면 철폐된다.

기존 평균 36%에 달했던 유제품 관세가 사라지는 것이다. 가격경쟁력 또한 수입 멸균 우유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폴란드산 멸균우유 ‘블레코비타 3.5%(1ℓ)’는 1900~1950원인데 비해 국내산 냉장우유는 2970~2990원에 팔리면서 1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멸균우유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1년에 달해 재고 관리 부담

이 적으면서도 냉장우유와의 영양소 차이도 크지 않다. 130~150도에서 0.5~5초간 살균하는 초고온살균법(UHT)으로 처리하는 일반 냉장 흰 우유와 동일하게 멸균 우유도 이와 같은 처리법을 적용한다.

다만 차이는 멸균우유의 열처리 온도가 냉장우유보다 높다는 점이다. 실제 멸균우유 수입량은 지난 2016년 1214t에서 2024년 4만8671t으로 약 40배 늘어났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소비자조사 결과에서도 수입 멸균우유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국산 시유보다 보관이 간편해서’(60.9%)와 ‘가격이 저렴해서’(26.4%)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개인 카페나 베이커리처럼 원가 압박이 큰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수입 멸균 우유로 향하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다.

광산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B씨는 “원두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월두뿐만 아니라 우유, 컵 등 납품 계산서 대부분에 가격이 올랐거나 올릴 예정이라는 안내가 이어지고 있지만 동네 카페 특성상 단골이 많고 주변에 카페가 많아 가격 인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구책으로 국내 우유보다 저렴한 수입 멸균 우유를 이용해 라떼나 디저

트에 사용하면 손님이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 원가 부담 속에서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원가 절감이 우선되는 카페, 제과·제빵업체 등을 중심으로 보다 저렴한 우유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국내 우유 시장이 환율 덕에 수입 우유 등의 공세에 버티고 있지만 향후 매대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우유 시장도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며 “다만 대형 유통업체와 달리 지역 낙농가들은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n404@

삼성, AI PC ‘갤럭시 북6 울트라·프로’ 출시

인텔 프로세서·갤럭시 AI 기능 3월 말까지 구매 고객 혜택도

삼성전자는 성능과 디자인,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AI PC 신제품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갤럭시 북6 울트라’는 40.6cm(16형) 단일 사이즈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북6 프로’는 40.6cm(16형)와 35.6cm(14형) 두 가지 크기로,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다.

갤럭시 북6 시리즈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3’를 탑재해 전력 효율과 처리 성능을 개선했다. 최대 초당 50조회 연산이 가능한 NPU를 적용해 이미지 편집, 텍스트 변환, 검색 등 AI 기반 작업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전작 대비 2배 수준인 최대 1000니트 HDR 밝기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갤럭시 북6 울트라’는 갤럭시 북 최초로 우퍼 4개, 트위터 2개를 포함한 총 6개의 스피커를 탑재해 웅장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지원한다.

또 갤럭시 북6 시리즈는 효율적인 발열 관리와 뛰어난 배터리 성능으로 장시간 사용 시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26일 국내 출시한 AI PC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소개하고 있다.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는 갤럭시 북시리즈 중 가장 긴 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을 갖춰, 최대 30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더욱 얇아진 두께부터 로고 위치, 키보드, 햅틱 터치패드 등 전반적인 디자인 요소가 새롭게 재구성됐다. ‘갤럭시 북6 울트라’는 전

작 대비 1.1mm 얇아진 15.4mm 두께, ‘갤럭시 북6 프로(16형)’는 전작 대비 0.6mm 얇아진 11.9mm 두께로 슬림한 디자인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6 시리즈’ 출시에 맞춰 3월 31일까지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배임죄 불명확성, 기업 투자·경영 판단 위축”

경제 8단체, 전면 개편·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촉구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타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배임죄 개편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가 처벌 대상과 범죄구성요건이 불명확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인들이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에 소

극적으로 변하고, 기업이 정신이 위축돼 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임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동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인들 역시 한국에서는 투자 판단의 결과만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외 신인도와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해법으로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경영 부담을 가중할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 중심으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면 개편이 어려울 경우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구성 요건을 개별 법률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 행위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기존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 손해 발생 우려만으로 배임죄로 기소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이사회 의사결정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전문적 경영 판단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소송 위험을 완화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aT, 설 물가 안정 미국산 신선란 수입

미국 청정지역 계란, 대한항공 화물기로 직송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는 26일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 1항차 물량이

인전공함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산 신선란 수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정부의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 발표한 이후 16일만에 이뤄졌다.

aT는 엄격한 국내 검역조건을 충족하

는 신선란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긴급 타진해 미국 청정지역의 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전용 화물기를 운항하기로 했다.

도착한 계란은 국내 지정 국제공인검정 회사를 통해 엄격한 검정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한글 표시사항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전 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후 설 명절 전까지 주요 유통업체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최무송 의장



임종국 부의장



고영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한양임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귀성 의원
(경제복지위원장)



이숙희 의원
(안전도시위원장)



최기영 의원



김영순 의원



주순일 의원



김건안 의원

2026년도 의사일정 시작!

올해도 변함없이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기대서 의원



전미용 의원



강성훈 의원



정상용 의원



손혜진 의원



황예원 의원



정달성 의원



정재성 의원



신정훈 의원